

## 동계초등학교 학생들, 지속가능한 환경교육활동 이어가

2024년 05월 08일 [순창신문—]



© 순창신문—

동계초등학교(교장 이희옥)는 2024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정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로 선정되어 지역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경교육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동계초등학교 교육가족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지켜주고 구해줄게!' 프로젝트 수업(이하 지구 프로젝트)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지구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지구의 날 계기교육 및 동계공유유산, 탄소제로 플라스틱 저금통, 우리마을 줍깅 활동, 탄소포인트 쿠폰 이벤트, 지구지킴이 소등행사 등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중심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지구프로젝트는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학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지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박지율(학생회장) 학생은 "학생자치위원회 회의시간을 통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토의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환경보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고 기쁘다"고 하였다.

동계초등학교 이희옥 교장은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학생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교육 및 보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남윙희 기자

남윙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프린트하기](#) | [닫기](#)